

# 의료인문학 교육을 위한 영상자료

천경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 Visual Materials for Medical Humanities

Kyung Hee Chun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인문사회의학 혹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료들이 요구된다. 특히 미디어 영상 자료 등은 학습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주의집중과 참여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다양한 영상자료 중 최근 5년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협력적 학습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업활동, 예를 들어, 영화포럼,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서 활용하였던 12편의 영상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b>1</b>	<b>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원제: Pay it forward)</b>	<b>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미 리더 감독(2001년 개봉)</li> <li>• 이 영화는 세상을 바꾸고자 한 주인공을 통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을 때,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진정한 실천을 유도하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li> </ul>		
<b>2</b>	<b>In a better world(원제: Haevnen)</b>	<b>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잔 비에르 감독(덴마크 영화로 2011년 개봉, 2011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li> <li>• 이 영화는 의사로서의 삶과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삶, 살리는 힘과 죽이는 힘, 갈등과 복수, 용서와 관용, 비폭력과 폭력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li> </ul>		
<b>3</b>	<b>Band of Brothers(특히 6부 Bastogne 추천)</b>	<b>10부작 미니시리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니 토, 리처드 롱크레인, 미카엘 살로먼 감독</li> <li>• 2001년 9-11월 HBO에서 방영, 에미상 19개 부문 노미네이트, 미니시리즈 최우수 작품상 포함 6개 부문 수상, 2002년 골든 글로브상 TV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 작품상 및 피바디상 수상</li> <li>• 이 영화는 좋은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의 특성을 비교하고, 어떤 리더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거나, 전쟁 속에서의 삶과 죽음, 의료행위의 의미와 의료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동료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할 때 활용 가능하다.</li> </ul>		
<b>4</b>	<b>울지마 톤즈(Don't cry for me Sudan)</b>	<b>다큐멘터리 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수환 감독(2010년 개봉)</li> <li>• 이 영화는 의미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 한 인간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봉사와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싶을 때, 지식의 실천과 행동하는 지식인에게 무언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무언가 성찰을 유도하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li> </ul>		
<b>5</b>	<b>Wit</b>	<b>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클 니콜스 감독(2001년 개봉)</li> <li>• 이 영화는 암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참여하면서 삶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환자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삶과 죽음, 감성과 이성, 치료와 치유, 좋은 의사와 좋은 의료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을 때, 그리고 의료진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를 리얼하게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li> </ul>		

<b>6</b>	<b>머니볼</b>	<b>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넷 밀러 감독(2011년 개봉)</li> <li>• 이 영화는 야구 실화에 기반하여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사고와 인간의 판단 오류 및 의사결정의 속성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나 혁신이 요구될 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일을 해야 하는지 등 삶과 일의 방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 가능하다.</li> </ul>		
<b>7</b>	<b>설리: 허드슨강의 기적</b>	<b>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2016년 개봉)</li> <li>• 이 영화는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즈가 허드슨 강에 성공적으로 불시착하는 과정을 통해 오랜 숙련과 연습,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구호 및 문제해결에서의 체계성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싶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인적 요소나 인문학적 속성의 배제 위험성과 절차나 이성, 수치나 과학에 대한 과신에 대해 토론하고 싶을 때, 그리고 세월호 사건과 함께 구조와 의료체계에 대해 성찰하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li> <li>• 특히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797회 이국종 교수 강연: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를 함께 보면서 토론하는 것도 권장한다.</li> </ul>		
<b>8</b>	<b>‘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amp;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겠습니다.’</b>	<b>세바시 동영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수영선수 김세준의 어머니 양정숙 씨와 수영선수 김세준의 세바시 강연</li> <li>•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477회, 365회</li> <li>• 이 영상은 장애인의 엄마로 사는 삶과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찰, 무엇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장애를 바라보는 세상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학생들과 논의하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 먼저 477회를 시청한 후 365회를 시청하는 것을 권고한다.</li> </ul>		
<b>9</b>	<b>캐스트 어웨이</b>	<b>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2001년 개봉)</li> <li>• 이 영화는 무인도에 남겨진 한 남자의 고군분투를 통해 재난과 고난,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 매슬로우의 욕구위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것과 지금의 삶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많은 혜택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li> </ul>		
<b>10</b>	<b>가타카</b>	<b>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앤드류 니콜 감독(1997년 개봉)</li> <li>• 이 영화는 유전자 조작, 우생학, 그리고 인간에 잠재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와 편견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윤리적 토론을 하고 싶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꿈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싶을 때, 생명을 다루는 일과 과학의 발전이 왜 인문학적 속성과 인간에 대한 이해에 기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li> </ul>		
<b>11</b>	<b>피아니스트</b>	<b>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만 폴란스키 감독(2003년 개봉)</li> <li>•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폴란드 유대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라브 스피elman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비통함과 아픔, 고통, 그리고 슬픔 모두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와 예술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하다.</li> </ul>		
<b>12</b>	<b>미 비포 유</b>	<b>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아 샤록 감독(2016년 개봉)</li> <li>• 이 영화는 의료윤리 4원칙인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해악 금지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4) 정의의 원칙을 학습한 후, 원칙 간 상충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영화 상황들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하다. 특히 환자의 고통, 삶의 질, 죽음, 안락사 등에 대한 학습과 성찰을 촉진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하여 생각해볼 시간을 갖게 하는 데 유용하다.</li> </ul>		